

## '팀연봉 27위' 최악체라던 팀이 ML 2위로

올 시즌 돌입 전만 해도 최악체로 평가받던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의 강팀으로 거듭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피츠버그는 2015년 와일드카드 진출 후 계속해서 하위권을 전전했다. 시장 규모가 작은 스몰마켓팀인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올 시즌 피츠버그의 팀 전체 연봉은 7,600만 달러(리그 27위)로 류현진(36·토론토)이 3년 전 따낸 FA 총액(4년 총액 8,000만 달러)보다 적다.

올해도 다수 매체로부터 하위권으로부터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날 현재 25경기를 치른 피츠버그는 승률 0.680(17승 8패)으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 메이저



▲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전에서 홈으로 쇄도하고 있는 피츠버그 배지환. 사진=ocregister.com

리그 전체 30개 팀 중 2위를 기록하는 반전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피츠버그가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기록 중인 공격지표가 하나 있다. 바로 34개의 팀 도루다. 그동안 도루는 성공률 75% 이상이 되지 않으면 득점을 생산하는 데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차츰 사장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성공률만 높일 수 있다면 스몰마켓 팀에는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볼거리가 풍성해짐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도루 성공률과 숫자를 늘리기 위해 올 시즌부터 베이스 크기를 넓히고 피치 클락 제도를 도입했다.

## ML 한 경기에서 '연타석 백투백' 홈런

메이저리그(ML) 한 경기에서 같은 선수들이 백투백 홈런을 2번이나 기록했다. ML 역대 5번째 진기록이다.

지난 25일 'OSEN'에 따르면 오를랜드는 전날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LA 에인절스와 원정 경기를 치렀다. 이날 오를랜드의 라인업에는 루커가 3번타자, 아길라는 4번타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를랜드는 1회부터 홈런포를 터뜨렸다. 2사 후 루커가 에인절스 선발 수아레즈의 초구를 때려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시즌 5호)을 쏘아올렸다. 이어 아길라는 4구를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 한 경기에서 백투백 홈런을 2번이나 기록하고 즐거워하는 루커(왼쪽)와 아길라. 사진=twitter(ESPNStatsInfo)

솔로 홈런(시즌 3호)을 터뜨렸다. 백투백 홈런이었다.

그리고 5-1로 앞선 3회 다시 루커와 아길라의 홈런포가 터졌다. 루커는 풀카운트에서 수아레즈의 체인지업을 때려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으로 연타석 홈런(시즌 6호)을 터뜨렸다.

이어 아길라는 1볼 1스트라이크에서 3구째 슬라이더를 끌어당겨 한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홈런(시즌 4호)을 쏘아올렸다. 또 백투백 홈런이었다.

한 경기에서 같은 선수가 백투백 홈런을 2차례 기록한 것은 오를랜드 구단 역사에서 최초 기록이다. 또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5번째 진기록이다.

## 코르다, LPGA '왕좌' 탈환



▲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탈환한 넬리 코르다. 사진=kget.com

혈전증을 극복하고 부활한 '장타자' 넬리 코르다(25·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왕좌'에 복귀했다.

지난 2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코르다는 전날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평점 8.53을 기록,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7.99)를 밀어내고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11월 리디아 고에게 1위를 내준 지 148일 만의 정상 탈환이다. 코르다는 지난 23일 끝난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3위에 오르는 성적을 낸 반면, 리디아 고는 컷탈락하면서 세계랭킹 순위가 뒤바뀌었다.

코르다는 2021년 4승을 쓸어 담고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차지하며 세계랭킹 1위를 질주하다 지난해 3월 혈전증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라 4개월 동안 필드를 떠났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1년 만에 통산 8승을 달성하면 완벽하게 부활했다. 코르다는 이번 시즌 6개 대회에 출전해 다섯 차례나 톱 6에 이름을 올리는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평균 드라이브 비거리 270.02야드(27위)에 달하는 장타력과 그린적중률 73.15%(16위)의 날카로운 아이언샷까지 갖춰 당분간 상승세가 예상된다.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메이저 쿨에 오른 리디아 부(미국·6.35)는 12위에서 4위로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고진영(7.24)은 3위를 지켰지만 김효주(4.63)가 9위에서 11위로 밀리면서 톱10에 한국 선수는 고진영만 남았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날말퍼즐 정답

|      |      |      |      |      |      |     |      |
|------|------|------|------|------|------|-----|------|
| 1 설  | 령    | 2 탕  |      |      |      | 3 버 |      |
| 날    |      | 4 약  | 5 진  |      | 6 조  | 랑   | 7 말  |
|      |      |      | 8 원  | 주    | 울    |     | 라    |
| 9 음  |      | 10 부 | 지    |      | 11 이 | 파   | 리    |
| 12 복 | 13 조 | 리    |      | 14 점 | 시    |     | 아    |
|      | 무    |      | 15 도 | 착    |      |     |      |
| 16 가 | 래    | 떡    |      | 17 제 | 18 기 |     | 19 탈 |
|      | 기    |      |      |      | 20 한 | 가   | 락    |